



“제주 민속보다 민속연구자 먼저 맥 끊길 위기”

제주학센터 민속 진흥 포럼 '제주의 민속' 발간 30년 홀려 제주도·대학 협력 인력 양성을 제주 문화유산 지정 비율 낮아 무엇이 살아 있는지도 살펴야

2007년은 '제주 민속문화의 해'였다. 제주도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 첫 지역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당시 “제주 민속은 세계 일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무형의 원동력”이라며 조사·연구·전시 등이 이어졌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지금, 제주 민속문화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현장의 연구자들은 “구조적인 연구 기반이 없어 극소수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인 경우가 많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지난 11일 제주학연구센터 주최로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포럼에서다.

이날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강소전 제주대 강사는 소멸·잔존·지속·변화·체험 민속으로 나눈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1차적으로 조사, 정리, 연구, 기록 보관(아카이브)을 하고 신화, 해녀, 세시풍속, 식생활 등 현재 전승이 지속되는 민속문화 항목을 우선해서 정책



지난 11일 제주 민속문화 진흥 포럼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개회식 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제공

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공공 영역에서는 유·무형유산, 해녀, 마을제, 향토음식, 농업유산 등 담당 부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관련 조직 총괄위원회 설치로 대표 민속문화를 활성화하고 '제주의 민속 I~V' (1993~1998) 발간 이후 30년이 지난 민속문화를 집대성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속문화를 조사, 분석, 연구할 수 있는 민속연구자가 극히 드물다”고 밝힌 강소전 강사는 제주도와 제주대가 협력해 인력 양성, 강좌 개설 등 민속문화 연구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민속)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가칭) 신설 등 대중 친화적이고 미래 문화산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제시했다.

송기태 목포대 교수는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압,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주제 발표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제 속 기존 작품과 예술 중심의 문화제에서 공동체의 유산으로 변화해 온 흐름을 다루면서 2000년 이후 제주 지방문화유산 지정 비율이 전국 광역 시도 중 13위에 머문 점을 짚었다. 고창농악보존회를 건강 한 무형유산 전승집단의 모델로 소개하며 제주에 시사점도 던졌다.

마치다 타카시 창원대 교수는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화 과제' 주제 발표에서 민속문화를 핵심으로 마을을 재생시킨 '동일본대지진과 민속문화'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민속문화의 에토스(ethos)는 오래된 의례와 기술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생활 지식·실천적 지식에 있다”고 했다.

허남준 제주대 명예교수가 좌장

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 오영주 제주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관련 조례가 비지정 생활민속의 조사·기록과 공동체 지원까지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제주에서 무엇이 살아 있으며, 누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행정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류진옥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무형유산 전승 지원 방향의 핵심은 전승 공동체의 주체성과 자율적 질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제주 민속문화 연구자의 세대 전승 위기는 전승 주체의 위기와 거의 유사한 수위이거나 그보다 더 비관적”이라며 대학의 현실을 꼬집었다. 강수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제주 차원의 미래 문화자원 발굴·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충북에서는 20년 전 충북 역사문화연구원이 설립해 충북 문화유산과 상호 보완 관계로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선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북은 매년 2~3건의 주제 또는 지역을 설정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정 또는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했다.

진선화기자 sunny@ihalla.com

영화觀 인턴

우리의 기초 회화

일이 손에 익으면 저절로 베테랑이 될 줄 알았다. 시간의 힘을 믿는 성실한 태도의 가치는 사라질 리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망연자실한 기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 위에는 먼지가 쌓인다는 것, 그 두께가 만든 흐릿함이 때로는 시야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을 알았을 때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무서웠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밟 밑에 두고 이제 그 층이 흔들릴 일은 없겠다고 믿었건만 나는 한 번 더 쿵 발을 굴러야 했다. 지나온 날의 내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의 내 걸음들을 위해서 새 신을 신고 또 한 번의 물집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이다.

김도영 감독이 연출하고 최민식, 한소희가 출연한 영화 '인턴'은 2015년 낸시 마이어스 감독, 로버트 드니로, 앤 해서웨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인턴'의 한국판 리메이크다. 지긋지긋한 나이 든 남성이 성공한 젊은 여성 사업가의 인턴이 되는 이야기로 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은 우정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일찌감치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얻은 영화다. 한국판 '인턴' 역시 원작의 기본 서사를 충실히 이어받는다. 기호(최민식)는 아내와의 사별과 퇴직 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던 차에 자신이 30년 넘게 일하던 회사의 터에 자리 잡은 패션기업 우투투의 실버 인턴 자리에 지원하고 채용된다. 위라벨이 무너진 채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우투투의 대표 선우(한소희)에게 갑자기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온 기호는 불편한 어른일 뿐이고 3개월이라는 인턴의 시간 동안 둘의 관계가 발전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영화 '인턴'.

친구가 되는 영화를 좋아한다. 세상이라는 넓디넓은 시공간 안에서 태어날 수 있는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라서 그렇다. 영화 '인턴' 속에서 관계는 타인을 바라보고 긍정하려 하는 순간 시작되고 지속된다. 낯선 존재에게 시간을 주는 일이 거듭될 때 발생하는 기류가 기초와 선우 사이에서 작용한다. 다름이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닮음을 목격하고 반기는 두 사람만의 순간이 그 기류 안에서 생겨난다.

말도 길게 섞지 않던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부딪치지 않으려 노심초사하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곁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풍경을 '인턴'은 만들어 낸다. 스쳐 지나가 타인으로 남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정중한 인사를 건네고 오래 고민한 부탁을 하고 깊은 감사를 표하며 끝내 해야 할 사과를 하고 몽글한 호통을 치는, 더 가까이로 향하는 회화의 과정이 영화 안에 눌러 담겨 있다. 한국판 '인턴'은 기본적인 태도의 언어를 성실하게 쓰는 영화다. 한 문장의 기초 회화가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지, 타인의 언어를 배우겠다는 마음이 자신의 삶 안으로 생각지도 못한 대화의 정원을 만들어 주는 지 발견할 수 있는 영화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배우·관객 더 가깝게 '소극장 연극축제'

제주 연극인들이 소극장 무대에서 관객들과 더 가깝게 만난다.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회관 소극장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펼치는 제35회 소극장 연극축제다.

첫날에는 퍼포먼스단 몸짓이 존속 살해범과 국선 변호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서늘한 풍경을 그린 '들꽃' (김승철 작, 강종임 연출)을 무대에 올린다. 출연 강종임·설승혜·함창호.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

둘째 날에는 극단가람이 시니어 배우들과 함께하는 '배비장과 애랑' (이광후 각색·연출)을 준비했다. 출연 오성세·장준길·진무길·정두리·이광후·변철환.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

마지막 날엔 극단세이레가 순수한 집착이 낳은 잔혹한 슬픔을 다룬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김숙종 작, 정민자 연출)을 공연한다. 출연 강바다·김시혁. 오후 7시30분 세이레아트센터. 유료. 예매는 네이버, 진선화기자

'혼디 2026' 한국 독립영화의 오늘 비춘다

올해로 9회째인 제주혼디독립영화제(혼디 2026)가 이달 18일 막이 오른다. '혼디보게마뺌'이란 슬로건 아래 나흘간 총 46편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돌 바람 스레기' (부호진 감독)와 '매밀, 섬의 안녕을 기원하다' (김병용 감독) 등 제주 소재 신작 2편이다. 오후 7시 개막식에 이어 오후 7시30분부터 무료로 볼 수 있다. 장소는 와흘매밀마을 야외공연장.

전국 공모 25편이 참여하는 '혼디경쟁' (메가박스 제주삼화)에선

관객이 뽑은 '혼디피플상' 5편을 선정해 폐막식(21일 오전 11시)에서 발표한다. '너넨송이' (메가박스 제주삼화) 부문엔 화해와 상생, 평화를 이야기하는 장·단편 9편이 초청됐다. 공식 색선으로 확대한 5편의 '혼디 넥스트' (메가박스 제주삼화)에선 AI와 영화의 새로운 관계를 묻는다. 새롭게 마련한 '인디는 제주로' (북촌사진관)는 지역 독립영화제 등의 추천작 5편을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매 정보 등 영화제 누리집 참고. 진선화기자

특별한 가을여행
제주↔일본전세기 2박3일
아소, 구마모토, 마메타마치

10.31(토)-11.2(월)
1,099,000

자유여행 에어텔
선착순 30명 한정! 국제선티켓+코코호텔 구마모토 카미토리
55만원(트윈룸) **65만원(싱글룸)**
항공료(TAX,일본출국세 포함), 호텔(조식 불포함)

제주↔항주(릉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항산	1,199,000
오진	1,199,000
상해	1,099,000

가을 항산 4인 출발확정
10.8(목)-11(월) 1,249,000 (한글날연휴) • 11.2(월)-5(목) 1,199,000

(춘추항공)
제주↔태항산

출발 확정
절벽과 협곡이 빛어낸 대자연 여행
10.25(일) 3박4일 | 10.28(수) 4박5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딱 4명만 모여도 출발합니다!

(매주) 일요일
3박4일 899,000

(매주) 수요일
4박5일 999,000